

글로벌 물류산업 동향

Global Logistics Industry Trend

2025. 4. 17

Contents

■ 이슈

'2025 신흥시장 물류지수' ... 중국 15년 연속 1위, 중동 강세

■ 산업 동향

우버, 도어대시 제소 ... 공정 경쟁 저해 및 고객 선택권 침해 주장
손보재팬, EC 반품 '리턴 플러스' 서비스 출시

■ 기술 동향

BYD, AI 모델 '딥시크 R1' 자율차 탑재
카오, 교대근무 계획 최적화 'CYTIS' 솔루션 도입

■ 정책 동향

선전, '무인차+드론'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 개장
경산성, 자동배송 로봇 사회 로드맵 발표

■ 신규보고서

차세대 물류를 위한 '디지털 WMS'

■ 기관 · 행사 동향

LogiMAT China 2025 외 4건



선전, '무인차+드론'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 개장

참고 | ['Blending tradition with tech: New smart logistics hub launched in Shenzhen'](#), Xinhua, 2025. 2. 19.
 ; ['China's First "Air-Ground Coordinated" Logistics Center Launches in Shenzhen's Bao'an District'](#),
 7ITS NEWS, 2025. 2. 19.

개요

- 선전 시정부가 중국 최초로 '무인차+드론'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를 개장
 - 중단거리 배송 수요 충족을 목표로, 궁극적으로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의 2시간 이내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
 - 선전은 올 연말까지 120억 위안을 투자해 드론 배송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이번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 개장을 통해 무인차와 드론의 수도로서 입지를 강화

주요 내용

- 중국 선전 시정부가 평이(豐翼) 바오안 저고도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이미지 참조)를 개장



〈 평이 바오안 저고도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 〉

- 기존 육상 배송과 저고도 경제(低空經濟)를 결합, 지상 길과 하늘 길을 연결한 중국 최초의 '무인차+드론' 물류센터
- 건물 옥상에는 드론 승강장이, 2층엔 드론 지휘 본부와 서비스 센터가, 1층에는 신속 배송 스마트 스테이션(Express delivery smart station)이 위치
- 외부에는 드론 승강 구역과 무인차 연결·정차 구역이 구비
- 드론 지휘 본부는 근·중거리 배송 수요에 맞춰 다양한 경로

7) Low Altitude Economy. 고도 1,000m 이하 공역에서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시스템(UAS)의 사용을 통해 물류, 교통, 관광 등을 활성화하는 산업을 통칭. 중국의 저고도 경제 규모는 2023년 5,000억 위안(약 687억 달러)을 돌파, 30년까지 2조 위안(2,75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와 적재량의 드론을 운영, 이 과정에서 가동 시간과 적재량 등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승강 구역 영상을 통해 드론 운항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

●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 설립은 근·중거리 배송 수요를 충족하고, 광둥-홍콩-마카오를 연계하는 웨강 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의 2시간 이내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궁극적으로 지향**

- 센터에는 다양한 드론 연결 방식이 설정, 시스템이 주소지에 따라 운항 계획을 수립
- 물품은 신속 배송 스마트 스테이션을 거쳐 순평(順豐) 익스프레스 네트워크를 통해 분류 후 처리
- 선전 시정부는 바오안 지역의 택배를 주하이(珠海), 중산(中山), 동관(東莞) 등 도시로 직접 배송해 궁극적으로 웨강아오대만구의 2시간 이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

〈 '무인차+드론' 배송 특징 〉

- (신속성) 무인차는 도보로, 드론은 공중으로 이동하므로 교통 체증을 회피
- (안전성) 무인차와 드론 모두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
- (편리성) 무인차가 드론까지 주문품을 배달하기 때문에 주문받은 업체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더 많은 고객 확보가 가능
- (비용 효율성) 무인차와 드론은 틈을 줄 필요가 없어 주문자 비용이 절감
- (환경 친화성) 무인차와 드론 모두 100% 전기로 작동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

● **선전은 스마트 물류 운영센터 개장으로 무인차와 드론의 수도로서 입지를 강화, 올 연말까지 120억 위안(약 16.5억 달러)을 투자해 드론 배송과 비행택시 등 인프라를 더욱 정비할 계획**

- 선전은 무인차와 드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신기술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이들 기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 산업 발전을 촉진
- 무인차와 드론의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플랫폼과 AI 기술로 무인차의 경로를 최적화하고 드론 배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도 개발
- 무인차와 드론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 이는 무인차·드론 혁신을 가속화하는 효과
- 물류 기업 및 기술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혁신적인 무인차와 드론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장려
-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社는 선전시의 저고도 경제 개발 전략에 발맞춰 새로운 글로벌 본사 건설을 추진, 선전시 약 1.6만㎡ 부지에 지능형 항공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설립할 계획
- DJI가 2022년 개장한 '스카이 시티' 본사는 이미 선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으며, 90m 길이 현수교로 연결된 105m 높이의 트윈타워는 이 회사 드론 R&D 기지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



경산성, 자동배송 로봇 사회 로드맵 발표

참고 1. 'より配送能力の高い自動配送ロボットの社会実装検討ワーキング・グループ 取りまとめ', 経済産業省, 2025. 2. 26. ; 'より配送能力の高い自動配送ロボットの社会実装に向けて (詳細版)', 経済産業省, 2025. 2. 26.

개요

- 경산성 '자동배송 로봇 검토 실무단'이 자동배송 로봇 사회 로드맵을 발표
 - △기대되는 활용 사례 △산업계 요구 사양과 운용 △사회 적용 전략 계획 등 수록
 - 실무단은 로봇의 조기 도입을 위해 최근 3년간을 '집중 실증시험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목표를 구체화할 예정

주요 내용

- 일 경제산업성 산하 '자동배송 로봇 검토 실무단⁸⁾'이 △기대되는 활용 사례 △산업계 요구 사양과 운용 △사회 적용 전략 계획 등 자동배송 로봇 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
 - (기대되는 사용 사례) 이동 판매, 개인 택배 등 배송(B2C), B2B 운송의 3가지 측면에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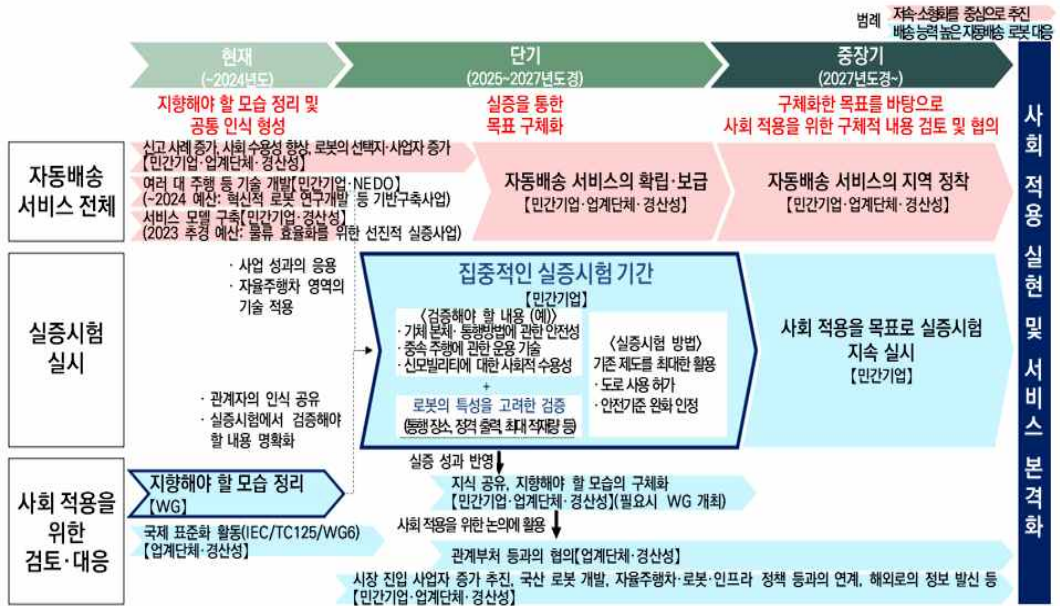


출처: 経済産業省, 'より配送能力の高い自動配送ロボットの社会実装に向けて (詳細版)'

〈그림〉 자동배송 로봇 사용 사례

8) 물류 인력 부족과 쇼핑 약자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출범(2024.7). 공식 명칭은 '보다 배송 능력이 높은 자동배송 로봇의 사회 적용 검토 워킹그룹(より配送能力の高い自動配送ロボットの社会実装検討WG)

- 저속 소형 로봇보다 크고 빠른 자동배송 로봇은 최대 적재량과 가동률을 높이고 건당 배송 시간을 단축, 또한 택배와 같은 다빈도 소량 배송, 무인 이동 점포를 통한 상품 판매, 쿠팡커머스의 배송 지역 확대 등으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물류를 구현
- (산업계 요구 사항과 운용) 공공도로 주행 시 크기와 속도, 통행 장소와 방법, 기체 구조, 안전기준 등에 대한 가설을 세워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예를 들면 중속 중형 로봇의 경우 경차보다 작은 기체가 최고 속도 시속 20km로 도로의 왼쪽 끝단에 붙어 통행한다는 가설을 제안
- 안전성 확보와 기존 교통과의 조화를 고려해 산업계 요구 사항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 (사회 적용 전략 계획) 로봇의 조기 도입을 위해 최근 3년간을 '집중 실증시험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목표를 구체화



출처: 상동 (上同)

〈그림〉 자동배송 로봇 사회 로드맵 개관

● 실무단은 다음 사항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 로봇의 원활한 공공도로 주행을 촉진할 계획

- 운용 방식(자율주행, 원격 조종 ...), 사고 대처, 안전성 인증 주체, 비상정지 장치, 부가 기능, 사회 수용성 향상 방안, 도시 정책과의 연계, 화물 하역/정차 위치 등